

무궁화의 조경적 활용



박형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

民 朝鮮紀))에서 볼수가 있다. 그내용을 보면은 경자조 (庚子條)에 노을왕(魯乙王) 이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유 (囿)를 만들어 짐승을 키웠다는 기사가 있는데 유는 나라 동산(苑囿恒)이라는 뜻으로 이모두가 새와 짐승을 놓아기르는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 문헌으로 생각되며 약3,900년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무궁화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 와 식재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문헌상으로는 고려예종 (1105)때 우리나라를 근화향(槿花鄕) 이라 부른 것이 처음인 것 같다.이것은 이꽃을 일명목근(木槿)이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궁화는 일찍부터 조경 식물로 사용 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2 무궁화의 과거 식재 경향

무궁화가 예로부터 조경 식물로써 이용 되었음은 짐작이 되는 사항 이지만 어디에 주로 식재되어 왔는지는 문헌상으로는 알아볼수가 없다. 다만 무궁화를 울타리로 심은 데서 불허진 번리화(藩籬花), 또는 순화(舜花)라는 이름에서 연유되는 내용을 추측해볼 정도이며 가까운 실례로는 일제시대에 찾아 볼수가 있다. 일제시대에는 무궁화 식재는 울안에 눈길에 잦은 곳에 한두 그루씩 관상수로 심거나 번식력과 수세가 강하여 생을 타리로 심어온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이때의 식수는 무궁화의 생리 및 생태적인 특성과 나라를 잃고 무연가 우리민족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노력하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듯하다.

무궁화는 토질을 가리지 않고 이식도 용이 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가까이 할 수 있다. 비록 한송이의 꽃수명은 짧지만 100일 동안이나 꽃이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항상 꽃이 피어 있는것과 다름없다. 특히 무궁화의 흰빛깔은 우리백의 민족의 옷빛깔과 같고 중앙의 붉은 색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켜주던 충신들의 일편단심을 상징하여 당시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민족에 혼을 일깨워 주는 듯했다. 그러기에 이시기에 무궁화는 한민족의 상징이며 나라의 꽃이라는 관념이 단순한 관상수의 용도보다 더 많이 작용되어 식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무궁화 는 나라꽃으로 우리나라민의 사랑을 받으며 꽃색이 아름답고 수형을 임으로 조절할수 있어 조경 식재에 훌륭하게 활용 될수 있다. 지금까지 무궁화는 집단으로 열식이나 단식으로 심어져 왔을뿐, 조경적 활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무궁화 한그루를 심더라도 가꾸는 노력과 아울러 그특성을 잘살려 공간 구성에 활용 한다면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을 조성 하는 등 조경적 가치증진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본다.

1. 조경의 역사와 무궁화

이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하여 갖가지 환경요인으로부터 자기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은신처로서 동굴이나, 가지뚝한 나무로 주위를 둘러막은 아늑한 자리를 마련 할 때부터 알게 모르게 조경이 시작 되었다고 본다. 이후 각국에서는 그나라의 국민성과 시대 사조 및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각기 고유한 조경 역사를 이어 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경의 시초에 대한 기록은 <대동사강(大東史綱)>, <권지일 단민 조선기(卷之一 壇)>

3. 오늘날의 무궁화 식재 경향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 이면서도 벗어나듯 다른 나라의 국화 만큼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 언제어디를 가나 항상 벗할 수 있는 꽃이 무궁화 이면서도 도시 조경에 있어서는 그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까지의 경향이다. 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무궁화의 조경적 활용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였고, 둘째로는 국화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된다. 물론 무궁화가 지니고 있는 결절도 많지만 다른 나라의 국화와 비교 하면 국화로써의 상징성이나 조경수목으로써의 특성은 결코 뒤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에 들어와서 다행스럽게도 무궁화에 대한 재인식과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및 월드컵 행사를 대비한 무궁화 심기 사업을 통하여 점차 나아 지고있다. 앞으로 조경수목으로서의 무궁화의 활용은 학교에서부터 각기관 및 어느건물을 신축할때는 무궁화나무가 식재될수 있고 관리를 잘하여 사랑받는 무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4. 무궁화의 수형

수형은 조경 식재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경 식재시에 수목의 생육에 별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형이 배식을 좌우하는바가 크다.

수형은 수간의 생장방향, 지조(枝條)의 신장 방향,수관 등의 전체적인 수형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환경과 기후조건 또는 인공으로 가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수형이 형성될 수 있다.

무궁화의 수형은 자연 적인 수형과 인공적인 수형으로 나눌수 있다. 자연적인 수형은 무궁화의 기본적인 생육형에 따라 유묘시와 성목시로 구분할수 있다. 유묘시에는 빗자루형이 되었다가 성목시에는 부채형이 된다. 인공적인 수형에는 무궁화가 맹아력이 강하고 다지형 이어서 강한 전정에도 잘견디므로 식재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형을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다.

5. 무궁화의 배식

대체로 무궁화의 자연적 수형은 자연 풍경식을 기조로 하는 조경 식재에 적합하고 무궁화의 인공적 수형

은 정형식을 기조로 하는 조경 식재에 적합하다.

- 단식 : 가장 중요한 자리, 즉현관 앞의 차돌림의 중앙이나 직교축의 중요한 위치에 양감이 있는 정형수를 독립적으로 한본 심는 경우이다. 이때에 무궁화는 3~4m의 완전 성목인 경우에 한한다.
- 대식 : 축의 좌우에 동형 동수종의 나무를 두그루 식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정연한 질서감을 표현할수 있다. 다른 수종을 대식하면 생장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 열식 : 동일한 나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직선상으로 식재하는 방법이다. 간격이 좁아지면 수관이 서로 붙어 통풍이 되지를 않아 고사율이 많고 이수종을 번갈아 반복식재할 때에는 강한 리듬감을 얻을 수 있다.
- 교호식재 : 같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식재하는 방법이다. 열식의 변형으로써 열의 폭을 증가 시킬 때를 말한다.
- 집단식재 : 집단적으로 수목을 심어 정해진 땅을 완전히 덮어 버리는 방법으로 군식을 말하고 멀리서 볼 때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질량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6. 자연 풍경식재

- 부등변 삼각형 식재 : 각기 크기를 달리한 세그루의 수목을 서로 간격을 달리하는 동시에 한직선 위에서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동양화의 기본수법으로 삼각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고 자연 스럽게 보인다.
- 랜덤식재 : 나무의 형상과 크기 및 식재 간격이 같지 않고 또한 한직선을 이루지 않도록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심어 가는 방법으로 부등변 삼각형 식재

를 기본형으로 삼아 크고 작은 나무가 모두 전후 좌우에 배치되어 그림관은 불규칙한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 기식 : 4본 이상의 나무로 하나의 식재 구성 단위를 만드는 방법이다.
- 군식 : 기식을 다수 모아서 군상으로 식재한 형태를 말한다.
- 산재식재 : 한그루를 드물게 흩어 지도록 심어 하나의 무늬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 배경식재 : 하나의 경관에 있어서 배경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구성 시키는 식재 방법으로 그기본형은 랜덤 식재 방법에 따른다. 식재는 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주목 : 나무수에 관계하지않고 경관의 중심적 존재로 하여 경관을 지배하는 수목을 주목이라 한다. 주목을 두드러지게 할 때에는 그 경관의 성격을 특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조경수**

